남북평화통일 서원 담은 '불(佛)사리탑' 세운다

부산 문수사, 7월 16일 오전 10시 제막식

민족 통일 위한 도량, 염원 계승
북한보현사 8각 13층 석탑 모형
불국사 석가탑 상륜부, 통일 상징
스리랑카 진신사리서 분과된 2과
40여 년 불사 마무리, '화룡점정'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남북평화통일 염원을 담은 부처님 진신사리탑이 부산 남구 문수사(주지 지원)에 조성된다. 문수사 진신사리탑은 40여 년 동안 도량 불사를 이어 온 주지 지원 스님의 도량 불사 회향이자 남북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해온 스님의 삶을 상징한다.

문수사는 7월 16일 오전 10시 진신사리탑 앞 마당에서 제막식을 봉행하고 불사 회향을 알린다. 제막식에는 송광사 방장 현봉 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법흥 스님,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경선 스님, 전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등 주요 내빈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원 스님은 "남북이 분단되어 혈육이 갈라지고 땅이 갈라진 지 반세기가 넘었다. 우리 민족의 숙원은 남북통일"이라며 "그 염원을 모아 부처님의 위신력에 기도하고 민족의 정신을 일궈내는 데 의미가 있다. 인연이 된 부처님 사리를 문수사에 여법히 봉안하고 민족통일을 위한 도량으로 염원과 정신을 계승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문수사 진신사리탑은 지원 스님의 남북통일 염원을 담아 북한 묘향산 보현사 8각 13층 석탑 형태로 구성됐다. 보현사는 북한 국보유적 제40호로 7세기경 건립된 주요 사찰이며 한국전쟁 당시 폭격으로 소실됐다. 현재 대웅전과 만세루 등이 1970년 복원돼 묘향산력사박물관으로 지정됐다. 보현사 8각 13층 석탑은 북한 국보유적 제143호로 고려후기에 조성됐으며 화강석으로 높이 8.58m에 달한다. 3단 지대석에 단층기단, 13층의 탑신부, 상륜부로 이뤄진 다각다층석탑으로 고려 석탑 중 가장 층수가 많고 화려하다.


문수사 진신사리탑 조감도.


불사리탑 불사를 진행해 온 문수사 주지 지원 스님.

문수사 진신사리탑은 보현사 8각 13층 석탑 형태에 불국사 석가탑 상륜부를 본떠 조성했다. 이는 북한과 남한을 대표하는 불탑을 함께 조성해 화합과 통일을 상징하기 위함이다. 또 진신사리는 7월 4일 기단 2층에 봉안됐으며, 대승경전인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을 비롯해 신도들이 직접 사경한 경전, 현대를 상징하는 물품인 핸드폰과 전자펜 등도 함께 봉안했다.

봉안된 부처님 진신사리는 스리랑카 야스기리아 종단 종정 스님이 1978년 방한해 남북평화통일을 기원하며 김종필 前 국무총리에게 전달한 불사리 5과에서 분과한 사리이다. 스리랑카에서 전달받은 불사리 5과는 2군 사령부 호국법당 무열사에 사리탑을 조성해 봉안됐고 당시 지원 스님은 군종병으로 근무하며 사리탑 조성 모연에 앞장섰다. 스님은 사리탑 조성 모연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분과된 사리2과를 받아 당시 문수암(현, 문수사)주지이자 지원 스님의 법은사인 덕암 스님께 전달했다. 덕암 스님의 입적 후 발견된 사리는 4년 전 사리함을 조성해 대웅보전에 이운했고, 사리탑 조성 위원회를 구성해 불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진신사리탑 회향을 통해 문수사는 민족통일을 상징하는 도량으로 완성됐다. 문수사는 70여 년 전 덕암 스님이 주석한 참회기도도량이었다. 지원 스님이 주지로 소임을 담당하면서 현 부지로 옮겨 중창불사를 진행했다. 도심 중심에 7000여 평에 이르는 부지에 대웅보전과 지장전, 삼천불전을 비롯한 요사채 등 20여 개의 종교 건축물과 신앙공간을 조성했다. 지원 스님은 대북사업을 통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통일부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위드아시아를 설립해 북녘 어린이를 위한 자비의 신발보내기, 통일자전거 보내기 운동, 남북학생미술전시회 등을 개최했고 북한 어린이를 위한 의약품 및 생필품 보내기 등 다양한 대북지원사업을 펼쳤다. 이뿐 아니라 근현대사의 소외계층을 보듬고 동체대비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활동에도 앞장섰다. '합천평화의집' 을 통해 원폭피해자 2세 복지지원, 나눔의집 등 민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활동도 주도했다.

지원 스님은 "이제 문수사는 정법신앙의 전당이 되고 사회교화의 광장이 되었다"며 "사리탑을 조성함으로 민족의 염원과 역사를 담아 이 땅에 불타(佛陀)의 법우(法雨)가 내려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태화선원 개원 법회 참석 대중이 불교중흥을 서원하고 있다.

울산KTX역 도심포교도량 태화선원 개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태화선원(주지 명본)은 7월 2일 선원 대웅전에서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개원식 행사는 식전 축하공연, 개회, 삼귀의, 반야심경, 축사, 법어(대법륜사 금강 스님), 명본 주지스님 인사말, 사홍서원, 회향, 다과회 순으로 진행됐다.

태화선원은 울산KTX역세권 신도시 도심포교 중심 역할로 개원과 함께 사시예불기도로 100일정진이 진행 중이다.

삼남읍 울주군보건소에 인접한 태화선원은 명본 스님의 원력불사로 문화, 수행정진의 힐링도량으로 자리하고 있다. 태화선원은 현대식 건물에 맞배지붕 형식으로 현대와 전통의 미를 살린 공간으로 구성됐다. 연건평210평(693m)에 3층 단독건물 1층에는 요사체 및 종무소,(80평), 2층에는 대웅전(50평 법당), 3층에는 명상실(50평)로 꾸며졌다.

개원법회 하루 전 창원 아랫녘수륙보존회 백운사 석봉 스님의 집전과 김해 대법륜사 금강 스님의 증명으로 석가모니불 점안법회도 봉행했다.

주지 명본 스님은 인사말에서 "도심포교의 일환으로 삼남읍 신도시에 휴식공간과 힐링공간을 제공하고자 불사를 진행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포교하고 정진하는 도량으로 발전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법회에는 김해 대법륜사 금강 스님, 태화선원 명본 스님, 영축총림통도사 총무국장 현덕 스님, 월봉사 보화 스님, 해남사 해원 스님, 내원암 진응 스님, 성불사 혜안 스님 등이 참석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월주 스님', 7월 정읍 역사인물 선정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 등 사상 재조명

전북 정읍시(시장 이학수)가 한국 불교계의 사회운동을 이끈 월주 스님을 7월의 정읍 역사 인물로 선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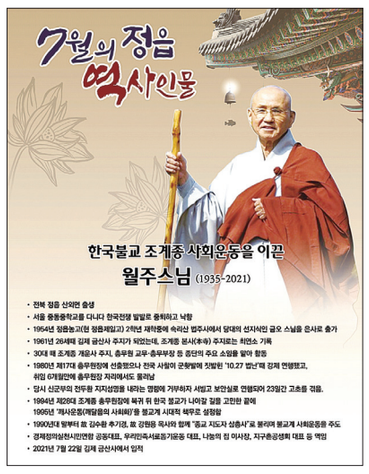
월주 스님(1935-2021)은 정읍시 산외면 출생으로 서울 중동중학교에 다니다가 한국전쟁 발발로 중퇴하고 낙향했다.

1954년 정읍 농업고(현 정읍제일고) 2학년 재학 중에 속리산 법주사에서 당대의 선지식인 금오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1961년 26세 나이로 김제 금산사 주지가 되었다. 조계종 본사(本寺) 주지로는 최연소 기록이다.

1980년 제17대 총무원장에 선출됐으나 전국 사찰이 군홧발에 짓밟힌 '10.27 법난' 당시 강제 연행돼 취임 6개월 만에 총무원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신군부의 전두환 지지 성명을 내라는 명령을 거부하자 서빙고 보안실로 연행되어 23일간 고초를 겪기도 했다.

1994년 제28대 조계종 총무원장에 복귀한 뒤 한국불교가 나아갈 길을 고민한 끝에 1995년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 을 불교계 시대적 책무로 설정했다. 이후 1990년대 말부터 故 김수환 추기경, 故 강원용 목사와 함께 '종교 지도자 삼총사' 로 불리며 불교계 사회운동을 주도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대표, 나눔의 집 이사장, 지구촌공생회 대표 등을 역임했으며, 2021년 7월 22일 김제 금산사에서 입적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정읍의 역사적 · 예술적으로 업적을 남긴 인물들이 재조명되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정읍의 인문 역사적 가치와 시민들의 자긍심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완주 송광사 '송광백련 나비채 음악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중단됐던 완주 송광사 '송광백련 나비채 음악회' 가 3년 만에 다시 열렸다.

완주 송광사(주지 법진)는 7월 2일 송광사 앞 마당 특설무대에서 '2022년 송광백련 나비채 음악회' 를 개최했다. 음악회에 앞서 송광사 사운당에서는 송광사 백련지에서 수확한 연을 재료로 한 연음식 만찬이 열렸다.

올해 나비채음악회는 모스틀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지휘 최영선)의 카르멘 서곡을 비롯한 12곡의 클래식의 아름다운 선율로 무더운 여름밤을 수놓았다. 또 소프라노 정혜옥, 테너 하만택, 바리톤 김동섭이 출연해 오케스트라의 선율과 함께 클래식 음악의 진수를 보여줬다.

송광사 회주 도영 스님은 "나는 항상 스스로에게 행복하다 즐겁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다"며 "여러분도 행복의 조건들에 따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닌 멈췄을 때 행복해진다는 생각으로 생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화순 개천사, 치유음악회 열어

코로나19 방역 종사자를 위한 치유음악회가 열렸다. 화순 개천사(주지 보원)는 지난 7월 2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코로나로 지친 사람들을 위한 치유음악회를 500여 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했다.

터울리기풍물의 신명나는 풍물 공연으로 시작된 행사는 소리꾼 백금렬 씨의 사회로, 국악가요(김주희, 송혜원), 거문고 연주(서여경)로 2년여 동안 이어진 코로나펜데믹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을 위한 무대를 열었다.

무대는 국악공연이 이어졌다. 바라춤(문영숙), 가야금병창(김민지, 이유리), 판소리 백금렬, 남도민요(김주희 외 3명)와 트로트 한가은 씨의 노래로 참여한 시민들의 치유음악을 선사했다.

보원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방역 종사자들을 위한 음악회를 열고자 했다. 어려운 시간을 겪은 많은 사람들이 치유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금강경한문+법화경강좌

부산
일시 :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30분 ~ 4시 30분
장소 : 부산역 앞 광장호텔 뒤 참맛집 5층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200-13)

대구
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30분 ~ 4시 30분
장소 : 이시아 폴리스 태왕아너스타워 상가1층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241)

● 동참자격 : 불교정법 공부를 서원 하신 분
● 수강회비 : 무료 (단, 교재비 3만원 자부담)
● 교육기간 : 1년 2학기 (수시모집)
● 문의전화 : 010-4501-8711

嶺南僧伽大學 總長 崔 空 德

종도집
입종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사본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내 외 (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 입종 종도에게는 승려증 (법사증·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과 간부스님에 한하여 추대장 및 위촉장 수여합니다.
※ 본 종단은 개인 사암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금송
T.055)747-1300 F. 055)747-1307
경남 진주시 잔양호로 293번길 7, 301호(유니언빌딩, 신안동)
김회종 변호사 전 진주지청장
정성윤 변호사 민사/가사 전문
정동윤 변호사 형사/부동산 전문
박상희 변호사 이혼/형사 전문
"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종도를 위한 고문변호사"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총무원장 법천당 청운
■ 총 본 산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전화 055)867-0024.0025 / 팩스 055)867-8009
■ 서울 총무원 : 전화 02)739-4780